

DRESDNER PHILHARMO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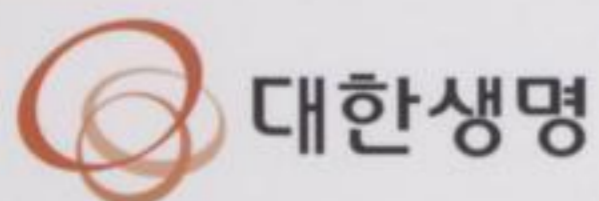
Rafael Frühbeck de Burgos
Mischa Maisky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당신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당신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꿈을
사랑합니다.



모던 해석이 흥내 낼 수 없는 독일 정통 관현악의 품격

드레스덴 필하모니 내한 공연

DRESDNER PHILHARMONIE

지휘 | 라파엘 프리벡 데 부르고스 Rafael Frühbeck de Burgos

첼로 |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2008. 6. 22 (일)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V&E | 주빈체로 협찬 | 대한생명

ABOUT Concert

Program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니(Dresdner Philharmonie)의 내한공연. 2007년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마태 수난곡' 반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이번에는 브람스, 드보르작 등 정통 관현악 프로그램으로 한국 팬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은 모던 해석과 젊은 지휘자 선호의 최근 경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20세기적 지휘 스타일을 고수하는 스웨인의 명장 라다엘 프뤼벵 데 부르고스(1933년생)가 잡는다. 협연자는 로스토로포비치가 영연한 이 시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가 60세를 맞아해 누구보다 애정을 가져온 한국**에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의 진수를 선사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 일흔 다섯의 나이로 가장 권속한 형태의 지휘봉 무엇인가를 보여줄 프뤼벵, 가장 첼리스트 계보의 마지막 주자 마이스키의 음악혼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치분하게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의미를 도둑아 보게 할 것이다.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가 궁정악단으로 시작해 지금도 드레스덴 국립극장의 오케스트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드레스덴 필은 1870년 창단은 궁정과 귀족의 후원 없이 유럽 시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오케스트라가 명운을 함께 해 비슷한 태생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자주 비교된다.

** 미샤 마이스키는 1997년 이래 수차례 내한공연을 가지면서 첼리스트 정현나를 세계 무대에 전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그리움 관감선> <청산여 살리리> 등의 한국 가곡을 자신의 음반에 레코딩하는 등 한국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Antonín Dvořá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104

협연: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Cello

Allegro

Adagio ma non troppo

Finale: Allegro moderato-Andante-Allegro vivo

INTERMISSION

Johannes Brahms

Symphony No.4 in e minor Op.98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Allegro non troppo

Andante moderato

Allegro giocoso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이 프로그램은 예술상의 사상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SLUB

Wir führen Wissen.



Dresdner
Philharmonie

PROGRAM NOTE

A. Dvořák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104

죽음을 5개월 앞둔 브람스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듣고서 "이런 첼로 협주곡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의 생각하지 못했을까, 만약 앞당겨서라도 나도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는 건데..."라고 했던 유명한 한식의 앞서던 말로, 생식 등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은 물론 고금의 첼로 협주곡들을 통틀어서도 기묘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드보르작의 협주곡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이 분명하다.

사실 많은 작곡가들이 낯선 곳에 대한 여행이나 타지에서 생활을 통해 종종 영감을 얻어 기존 곡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 예는 얼마든지 있지만 특히 드보르작의 경우처럼 통성한 결실을 이끌어 낸 작곡기도 많지는 않으며 첼로 협주곡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수많은 작품으로 이미 널리 유명한 드보르작은 1892년(14)부터 뉴욕 국민음악원(American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in New York) 초대원장으로 초빙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3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통하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아메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현악 사중주, 그리고 이 첼로 협주곡 등 영감이 타어나게 된다. 당연히 드보르작이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작품들의 탄생도 역시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드보르작의 미국 시절 작품들에는 미국 땅의 낯선 풍경,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조국의 땅과 삶에 대한 향수 등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 첼로 협주곡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할 당시만 해도 처음 접하는 신대륙 아메리카의 신난한 정취와 거기서 살고 있는 흑인과 인디언들의 민속 음악에 생생한 해를 느꼈고 그 요소들을 작품 속에 과감하게 담아내었다. 그러나 미국, 그것도 거대한 영의 대도시 뉴욕에서의 생활은 드보르작에게 소박한 보헤미아 전역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일으켰고 결국 그는 1894년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프라하와 비스카의 별장에서 보내게 된다. 이 작품은 미국 생활의 마지막에 작곡된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인 11월 8일 뉴욕에서 작곡에 착수, 이듬해 조국 보헤미아로 귀국한 이후인 1895년 2월 9일 프라하에서 완성되어 동향의 첼리스트인 하누스 비한(Hanus Wihan)에게 헌정되었다. 비한은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보헤미아 지방으로 같이 연주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한에 대한 드보르작의 큰 '선물'은 아메리카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는 악보를 받은 후 정성껏 쓴 비한의 카민자를 드보르작이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초연은 1896년 3월 10일 런던 필하모닉 협회의 연주회에서 드보르작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첼로 독주는 당시 유명한 첼리스트였던 레오 스텐(Leo Stern)이 맡았으며 연주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비한은 1897년 빌헬름 템플레르크의 지휘 아래 라이프치히에서 이 협주곡을 처음 연주했으며 이후에 좋은 많이 연주를 가졌다. 이 곡에는 드보르작이 사랑했던 요제파 체르니코바(Josefa Černáková)에 대한 추억도 들어있는데, 작곡 당시 체코야리비카 출생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자신의 가곡 선율을 2악장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1898년 5월 그녀를 세상에 떠나는데 슬픔에 빠진 드보르작은 초연이 있던 후에 프라하에서 마지막 40대를 지우고 60대대를 맞이하는 등 곡을 개작하기도 했다.

이 곡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 깊은 민족적 정서에 있다. 드보르작이 평생토록 애정을 보인 보헤미아의 민속음악은 미국 인디언의 민속음악이나 흑인 영가와 리듬이나 선율 면에 있어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간헐하게 융합하여 작품에 자연스럽게 흘러 넣었지만 드보르작은 결코 이 두 차이의 선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선율을 사용하여 늘어난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곡은 연주가 무척 까다롭기도 한다. 4번 보헤미아적인 정열과 미국의 민요, 인디언과 흑인 음악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첼리스트는 비르투오조적인 연주를 펼쳐내며, 오케스트라는 신성한 민족적 색채와 웅장한 협주를 조화롭게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협주곡과는 달리 독주부와 오케스트라가 대립보다는 공감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교향악적인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2번 편성을 고수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트롬본이나 튜바 등의 저음 관악기를 추가하여 울림을 증가시켰다.

첼로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드보르작이 이렇게 뛰어난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아일랜드 태생의 마흔 여섯이 된 첼리스트였던 빅터 헤르베(Victor Herbert)의 첼로 협주곡 2번을 듣게 된 계기도 있었다. 과거나 지금의 예외기쁨에게는 여러 모로 타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악장 Allegro 소나타 형식, b단조, 낮은 음역의 현악기 반주 위로 어두운 저음의 목관악기가 곧 전체적 분위기를 이루는 유명한 첼로 독주를 연주하고 밝게 빛나는 호른에 의하여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무주제가 나타나며 서서히 관현악적으로 고조된 후 첼로가 등장하여 이를 반복한다. 이후 여러 개의 주제가 차례로 나타나 전개된 후 제1부는 무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코다 부분에서는 3장조의 달랑하고 동일한 관현악으로 마무리된다.

제2악장 Adagio ma non troppo 3장조로 3부 형식, 1주제는 오보에와 바순이 부드럽고 조용히 울려나오며 첼로가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첼로가 이를 받아 음악을 발전시킨다. 2주제는 6장조로 전조되어 악상이 어떻게 바뀌는 데 특별한 흥미를 사하여며 앞서 말한 요제파에 대한 추억에 드보르작 자신의 가곡 선율이 이어진다. 3부는 카렐스 풍의 독주형도가 주제를 변주하는데 점차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더해지며 짧은 코다에 의해 작곡가 지미트를 맺는다. 미국 땅 아메리카에서 민 고국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전형적인 보헤미아적 악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첼로의 연주는 극히 서정적이다.

제3악장 Allegro moderato 자유로운 분도 형식, b단조, 긴 7박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 대의 호른에 의하여 단순하지만 장대한 주제가 제시되며 다른 악기로 옮겨져 발전하다 첼로에 의해 완전한 형태로 힘있게 연주된다. 격렬한 악상과 보헤미아적인 권위의 선율이 공존하여 곡의 마지막은 마치 숨을 고르듯 서서히 디미뉴엔도로 이어진다. 분도 주제의 변형이 연주되며 활기차고 힘 있는 결말을 맺는다.

PROGRAM NOTE

J. Brahms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부독일 함부르크 태생의 브람스가 남긴 4곡의 교향곡은 이 장르에서 베토벤 등과 더불어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데, 적은 수라고도 할 수 있는 4곡의 교향곡은 모두 고전주의에 입각하여 지극히 엄밀하고, 뛰어난 기교와 순수음악적인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브람스가 낭만주의의 천성기에 태어나 낭만주의 초기의 사상을 따른 작곡가임에도 자신의 원형을 고전주의 시대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표제음악을 배척하고 절대음악을 추구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고전주의적 입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깊은 독일의 작곡가로서 동경에 미치지 못했던 베토벤과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닮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이 중앙상을 받고 활기차게 마무리한 반면 브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3번 교향곡은 체념한 듯 조용히 끝내기도 한다. 또한 베토벤은 개방한 남북적인 기질을 음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북부 독일인인 브람스는 분노나 항의의 표현이 훨씬 내성적일 정도로 구름 낀 듯한 울림을 진하게 표출하여 북극의 어둠을 심도 있게 나타내고 있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4곡이 모두 4악장을 취하고 있으며 2악장이 공통적으로 느린 것처럼 4곡의 배열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브람스는 2번 교향곡을 작곡한 6년 후인 1863년(30세) 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3번 교향곡을 완성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의 신중한 작곡 스타일에 비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작곡된 셈인데 4번 역시 브람스답지 않게 이례적으로 짧은 시기인 1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즉, 1864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뮌헨슈타트(Munich)에서 휴양하던 시기에 4번 교향곡의 작곡에 착수하여 1, 2악장을 썼으며 1865년 여름 다시 뮌헨슈타트를 방문하여 나머지 두 악장을 완성하였다.

이 위대한 4번 교향곡도 베토벤 초연 전에는 한슬릭(Eduard Hanslick)이나 헤이초겐베르크(Elisabeth von Herzogenberg) 등 지지자들에게조차 큰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1865년 10월 25일 마이닝겐(Meiningen) 궁정 극장에서 개최되었던 궁정 오케스트라의 제1회 예연회에서 브람스 자신의 지휘로 초연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3악장은 대단한 반응을 얻어내었다.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 이후 유럽의 각지에서 11회에 걸쳐 초연되었다. 대저지 한스 폰 뷔로우(Hans von Bülow)의 노력과 후한 역시 큰 도움을 주었는데 4번은 브람스의 생전에 자주 연주되었으며 대중들에게도 큰 호명을 받았다.

4번 교향곡은 전반적으로 고전적인 정서는 물론 작곡 형태 역시 고풍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바로크와 그 이전 시대의 음악적 명칭이 잘 나타나 있다. 전 반적으로 대위법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낭만주의 시대의 관현악곡으로는 편성이 결코 큰 편이 아니라는 점, 2악장에서는 고대 프리지아 선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장엄한 피사델리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 4번의 고색창연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4번은 3번에 이어 작곡되었음에도 전혀 다른 스타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세 곡의 교향곡과 비교해 봐도 그러하다. 즉, 1번 교향곡에서 나타나는 투쟁을 통한 압축에서 광명으로의 승리, 2번의 목가적인 밝은 행복과 기쁨, 3번의 낭만적인 종래함과 정중함이 4번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4번 교향곡은 앞의 3곡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길이 있는 우수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50세를 넘긴 브람스가 인생에 대한 달관(達觀)과 반추(反芻)를 바탕으로 곡을 작곡했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절정의 비애와 슬픔, 상상의 환희라는 현상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아랫 베토벤적인 고뇌와 동경, 열정과는 확연히 다른 브람스적인 체념과 공허함이 청자들에게 또 다른 공감과 위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위안을 끌어내고 있다고 해도 차라니 많은 아닐 듯하다.

제1악장 Allegro non troppo 3장조의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 서주부 없이 제1주제는 현악기 반주에 의하여 단번에 선율의 연례로 제시되는데 이 주제의 대립하는 깊은 호소력을 발휘하며 제2주제는 이완,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아름답다. 각 주제는 여러 가지로 전개되는데 슬슬함과 제1주제가 장려하며 제2주제의 마지막 코다는 마치 이러한 분위기를 몇 차례에 이르는 것처럼 주제의 처음을 테이크로 힘차게 시작하여 갈릴 갈릴라와 오케스트라의 추주로 끝을 맺는다.

제2악장 Andante-moderato 3장조로 소나타 형식, 2장조로 3부 형식, 1주제는 오보에와 바순이 부드럽고 조용히 울려나오며 첼로가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첼로가 이를 받아 음악을 발전시킨다. 2주제는 6장조로 전조되어 악상이 어떻게 바뀌는 데 특별한 흥미를 사하여며 앞서 말한 요제파에 대한 추억에 드보르작 자신의 가곡 선율이 이어진다. 3부는 카렐스 풍의 독주형도가 주제를 변주하는데 점차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더해지며 짧은 코다에 의해 작곡가 지미트를 맺는다. 미국 땅 아메리카에서 민 고국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전형적인 보헤미아적 악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첼로의 연주는 극히 서정적이다.

제3악장 Allegro giocoso 3장조로 3부 형식, 1주제는 오보에와 바순이 부드럽고 조용히 울려나오며 첼로가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첼로가 이를 받아 음악을 발전시킨다. 2주제는 6장조로 전조되어 악상이 어떻게 바뀌는 데 특별한 흥미를 사하여며 앞서 말한 요제파에 대한 추억에 드보르작 자신의 가곡 선율이 이어진다. 3부는 카렐스 풍의 독주형도가 주제를 변주하는데 점차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더해지며 짧은 코다에 의해 작곡가 지미트를 맺는다. 미국 땅 아메리카에서 민 고국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전형적인 보헤미아적 악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첼로의 연주는 극히 서정적이다.

제4악장 Allegro energico e passinato 3장조, 3장조로 3부 형식, 1주제는 오보에와 바순이 부드럽고 조용히 울려나오며 첼로가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첼로가 이를 받아 음악을 발전시킨다. 2주제는 6장조로 전조되어 악상이 어떻게 바뀌는 데 특별한 흥미를 사하여며 앞서 말한 요제파에 대한 추억에 드보르작 자신의 가곡 선율이 이어진다. 3부는 카렐스 풍의 독주형도가 주제를 변주하는데 점차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더해지며 짧은 코다에 의해 작곡가 지미트를 맺는다. 미국 땅 아메리카에서 민 고국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전형적인 보헤미아적 악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첼로의 연주는 극히 서정적이다.

글: 손진영 / 음악: 김민준

ORCHESTRA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니

화려함을 가린 깊은 색조, 서유럽이 모방할 수 없는 육중한 동독 관현악의 품격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국립극장)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1870년에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베르베 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했다.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작,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작 자연했고 1934년부터 파울 반 캠펜, 칼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1945년 이후 쿠르트 마주어, 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같은 정통 실력파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명명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현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스페인의 명장 라파엘 프뤼백 데 부르고스가 2004-5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장 쿠르트 마주어 역시 드레스덴 필하모니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현재 계관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재임하고 있다.

음반은 주로 베를린 클래식(Berlin Classics)에 많은데, 특히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 파울 반 캠펜 지휘, 빌헬름 캠프 피아노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 23(DG),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가 지휘하고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등은 불후의 명반으로 꼽힌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공연장으로 유명한 쿨투어팔라스트(문화궁전)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Dresdner Philharmonie

With its approximately 80 concerts in the festival hall of the Dresden Kulturpalast, the Dresdener Philharmonie essentially characterizes the cultural life of the city. The concerts of the orchestra, which emerged the central attraction for thousands of Dresdners and for the guests of the metropolis on the Elbe, so called Florence on the Elbe. Guest conductors and soloists play together with the orchestra in its home town. For their part, the philharmonic orchestra is sought-after on the concert stages world-wide. In its 135-year history Dresdner Philharmonie gave performances in the Europe, China, Japan, Israel as well as in contries of South America and USA.

Dresdener Philharmonie traces its formation back to the formal opening of the first concert hall on November 29th 1870 in Dresden. This marked a new stage, a change away from the aristocracy to the performing of concerts for general public. From 1885, the then "Gewerbehäuserorchester" gave philharmonic concerts in Dresden, which earned them the title "Dresden Philharmonic Orchestra" in 1915.

In the past, Brahms, Tschaikovsky, Dvorak and Strauss, amongst others, have conducted their works with the orchestra. Distinguished persons such as Hans von Bülow, Anton Rubinstein, Bruno Walter, Fritz Busch, Arthur Nikisch, Hermann Scherchen, Erich Kleiber, Willem Mengelberg have conducted the orchestra. After 1945, conductors such as Otto Klemperer, Karl Anserl, Vaclav Neumann, Seiji Ozawa, Klaus Tennstedt gave guest performances with the Dresdener Philharmonie, as well as soloists such as Emil Gilels, Wilhelm Kempff, Elly Ney, Gidon Kremer, Ruggiero Ricci, Henryk Szeryng, Pierre Fournier, Mstislav Rostropowitsch, Aurele Nicolet, Maurice Andre, Bruno Leonardo Gelber, Rudolf Buchbinder, Frank Peter Zimmermann, Heinrich Schiff, Mischa Maisky, Christian Zacharias.

Previous Music Directors have included, amongst others, Paul van Kempen, Carl Schuricht, as well as Heinz Bongartz, Horst Foerster, Kurt Masur, Guenther Herbig and Herbert Kegel, and Joerg-Peter Weigle. Michel Plasson was principal conductor from 1994 to 1999. In 2001 Marek Janowski took the helm. From 2004 Rafael Fruehbeck de Burgos has been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er Philharmonie.

ORCHESTRA

Members

Chief Conductor
Rafael Frühbeck de Burgos

Conductor Laureate
Prof. Kurt Masur

Orchestra Manager
Anselm Rose

Conductor Emeritus
Prof. Heinz Bongartz †
Prof. Wilhelm Kempff †
Prof. Dr. Dr. h.c. Rudolf
Mauersberger †
Prof. Elly Ney †

1. Violin
Prof. Ralf-Carsten Bromsel (KM)
Heike Janicke (KM)
Prof. Wolfgang Hentrich (KM)
Dalia Schmalenberg
Eva Dollfuß
Siegfried Koegler (KV)
Jurgen Nollau (KV)
Volker Karp (KV)
Prof. Roland Eitrich (KV)
Heide Schwarzbach (KV)
Christoph Lindemann (KM)
Marcus Gottwald
Ute Kelemen (KM)
Antje Brauning (KM)
Johannes Groth
Alexander Teichmann
Annegret Teichmann
Juliane Kettschau
Maria Geißler

2. Violin
Heiko Seifert (KV)
Cordula Eitrich
Gunther Naumann (KV)
Erik Kornek (KV)
Reinhard Lohmann (KM)
Viola Marzin (KV)
Steffen Gaitzsch (KV)
Dr. phil. Matthias Bettin (KM)
Andreas Hoene (KM)
Andrea Dittrich (KM)
Constanze Sandmann (KM)
Jorn Hettfleisch
Dorit Schwarz
Susanne Herberg
Christiane Liskowsky

Viola
Christina Biwank (KM)
Hanno Felthaus (KM)

Piotr Szumiel
Beate Müller (KM)
Steffen Seifert (KV)
Gernot Zeller (KV)
Holger Naumann (KV)
Steffen Neumann (KM)
Heiko Murbe (KM)
Hans-Burkart Henschke
Andreas Kuhlmann (KM)
Joanna Szumiel
Susanne Neuhaus
Wenbo Xu
Cello
Matthias Brautigam (KV)
Ulf Prella (KV)
Victor Meister
Petra Willmann (KM)
Thomas Baz (KV)
Rainer Promnitz (KM)
Karl-Bernhard von Stumpff (KM)
Clemens Krieger
Daniel Thiele
Alexander Will
Bruno Borrathinho

Contrabass
Prof. Peter Krauß (KV)
Benedikt Hubner
Tobias Glockler (KM)
Norbert Schuster (KV)
Bringfried Seifert (KM)
Thilo Ermold (KM)
Donatus Bergemann (KM)
Matthias Bohrig
Olaf Kindel

Flute
Karin Hofmann (KV)

Mareike Thrun
Birgit Bromberger (KV)
Gotz Bammes (KV)
Claudia Teutsch

Oboe
Johannes Pfeiffer
Undine Rohner-Stolle
Guido Titze (KV)
Jens Prasse (KM)
Isabel Hils

Clarinet
Prof. Hans-Detlef Lochner (KV)
Fabian Dirr (KM)
Henry Philipp (KV)
Dittmar Trebeljahr (KM)
Klaus Jopp (KM)
Bassoon
Michael Lang (KV)
Daniel Baez
Robert-Christian Schuster
Prof. Mario Hendel (KV)
Hans-Joachim Marx (KV)

French horn
Prof. Jörg Bruckner (KM)
Michael Schneider (KM)
Friedrich Kettschau
Torsten Gottschalk
Peter Graf (KV)
Johannes Max (KM)
Dietrich Schlat (KM)
Carsten Geißmann

Trumpet
Andreas Jainz (KM)
Christian Hoehert (KM)
Csaba Kelemen

Roland Rudolph (KV)
Nikolaus von Tippelskirch

Trombone
Prof. Olaf Krumpfer (KV)
Michael Steinkuhler
Joachim Franke (KM)
Peter Conrad
Dietmar Pester (KM)

Tuba
Jörg Wachsmuth (KM)

Harp
Nora Koch (KV)

Timpani/Percussion
Prof. Alexander Peter (KM)
Oliver Mills
Gido Maier
Axel Ramlow (KV)

KM = Kammermusiker
KV = Kammervirtuos

Orchestra Managing Committee
Gunther Naumann (KV)
Norbert Schuster (KV)
Jörg Wachsmuth (KM)

Orchestra Management

Artist Coordinator
Martin Bulow

Orchestra Supervisor
Matthias Albert

Orchestra Assistants
Herybert Runge
Gerd Krems



CONDUCTOR

Rafael Frühbeck de Burgos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

고집스러운 정통에 대한 집념, 사라져 가는 20세기적 지휘 스타일의 표본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는 1933년 9월 15일 스페인 부르고스에서 독일인 부친과 스페인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의 <데 부르고스>는 부르고스 출신 사람이라는 뜻이며 줄여서 부를 경우 <프뤼벡>으로 칭한다. 빌바오와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작곡을 배웠고 독일 뮌헨 고등음악학교 지휘과로 유학을 떠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1959년 빌바오 심포니 상임 지휘자를 거쳐 1962년 서른의 나이로 스페인 국립관현악단 상임지휘자에 올랐고 1975년 가을에는 몬트리올 심포니 음악 감독직에 오르면서 볼프강 자발리시, 주빈 메타 등과 함께 1970년대 지휘계의 신성으로 각광 받았다.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슈타츠 오페라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오스트리아 빈 심포니 수석지휘자를 지냈으며 유럽과 미국 굴지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지휘로 명성을 드높였다. 1996년 11월 빈 심포니와 함께 내한해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 빈 심포니의 장기를 여실히 보인바 있다. 일찍부터 라벨 관현악 작품에 일가를 이뤘고 파야 관현악곡집, 멘델스존 '엘리아', 모차르트 '레퀴엠',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비제 '카르멘' 음반은 20세기 오케스트라의 자취를 그대로 담은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로드리고 아랑페스 협주곡,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데 로스 앙헬레스와의 스페인 명가집(名歌集) 등, 스페인 음악 연주에 있어서 프뤼벡이 보인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 있는 리듬감은 후세 젊은 지휘자들이 좀처럼 따라 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다. 현재는 이탈리아 RAI 국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Rafael Frühbeck de Burg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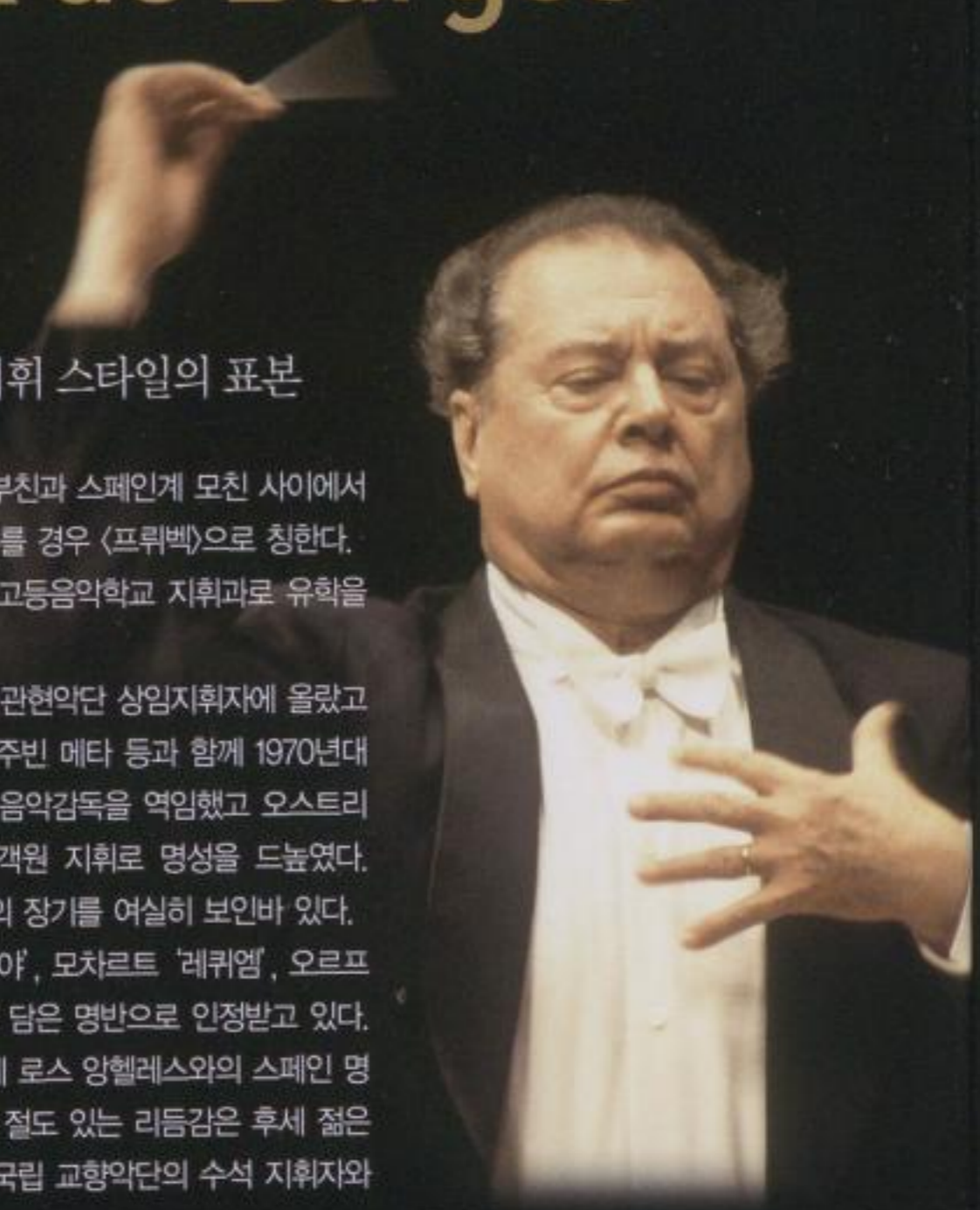
Rafael Frühbeck de Burgos was born in 1933. He studied violin, piano, theory and composition at the Conservatories of Bilbao and Madrid.

Rafael Frühbeck has been the Principal Conductor for some of the most important ensembles including the Bilbao Orchestra (1958-1962), the Spanish National Orchestra in Madrid (1962-1978), the Duesseldorf Symphony Orchestra (1966-1971), and the Montreal Symphony Orchestra (1974-1976). He has been first guest conductor of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in Washington DC, the Wiener Symphoniker (1991-1996) and the Nippon Yomiuri Orchestra in Tokyo (1980-90) where he has been Honorary Conductor since 1991. From 1992 through 1997, he has been General Music Director of the Deutsche Opera Berlin and since 1994 he has been the Conductor of the Rundfunk-Symphonieorchester Berlin. He has also been Conductor Emeritus of the Spanish National Orchestra since December 1998.

In September 2001, he became the first conductor of the Orchestra Sinfonica Nazionale della RAI. He has conducted all the most important American Orchestras. He is a regular Guest Conductor of the Berlin, Munich and Hamburg Philharmonic Orchestras, the various German Radio Orchestras, the Gewandhaus of Lipsia, the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the Japanese Orchestras, as well as the five London Orchestras.

The season 2003/2004 maestro worked as the first Guest Conductor of the Dresdner Philharmonie. Since September 2004 he has been its Principal Conductor and Artistic Director.

He made more than 100 recordings with Emi, Decca, Deutsche Grammophon, Columbia, Orfeo, Nimbus and Collins Classics. In 2004 maestro recorded the first CD with the Dresdner Philharmonie - symphonic poems "Don Quixote", "Don Juan" and "Till Eulenspiegel" by Strauss. Then "Eine Alpensinfonie" and the Suite from the opera "Der Rosenkavalier" came out and were received by critics with delight. The "Encore" composed from records of 2006/2007 New Year's concerts let out more recently. In 2007, CD works by Bruckner, Wagner and Brahms were released.



SOLOIST

Mischa Maisky

미샤 마이스키 |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를 가슴 속에 묻고, 이 시대 남은 마지막 첼로의 장인

라트비아 공화국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난 미샤 마이스키는 리가 음악원에서 처음 첼로를 배웠다.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부속 음악학교, 모스크바 음악원을 마치고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하며 이 시대 최고의 두 거장에게 모두 가르침을 받은 유일한 첼리스트로 인정받는다.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어 2년간의 옥중생활을 해야 했고 1972년, 24세 때 출국허가가 내려져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부터 자유를 찾게 된다.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킨이 말보로 음악제에 초청했고 피츠버그 심포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서방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마이스키의 강점은 윤기 있는 음색으로 지나치게 감성과 기교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그의 연주는 훌륭한 성악가의 절창을 연상시키는 매력을 지녔다. 특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서정적인 연주는 바흐 작품의 원류에 취해있던 애호가들에게 큰 파문을 안겨 주었고 동곡 최고의 명반으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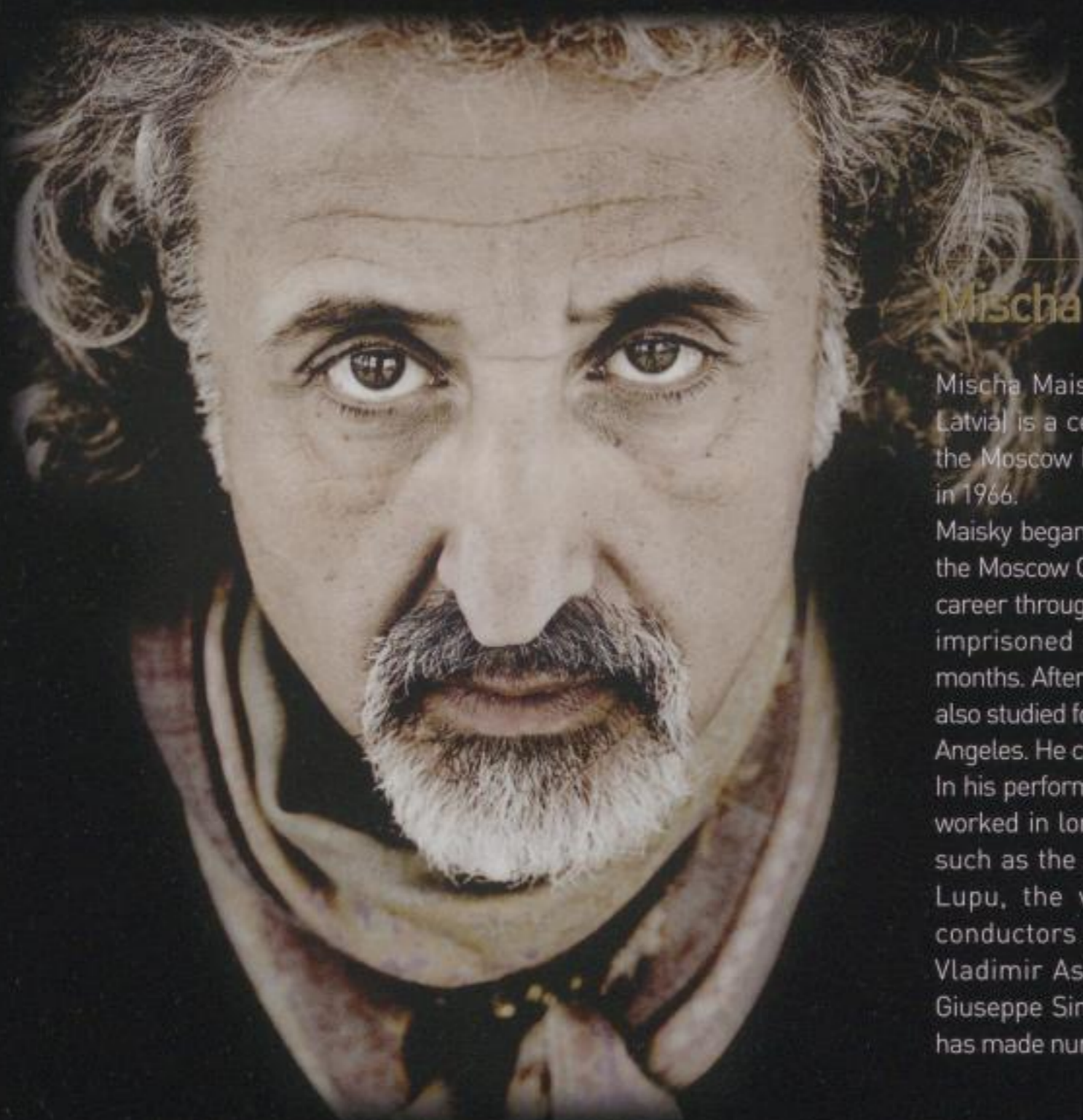
하늘하늘한 소재와 원단의 일본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를 연미복으로 입는 미샤 마이스키 특유의 무대 의상을 쇼맨십으로 연결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마이스키는 단지 연주하기에 편한 실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20세기 첼로의 절대 거장들이 모두 사라진 이 시대, 음악은 종교라는 신념으로 음악을 대하는 미샤 마이스키의 가치는 이번 연주회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Mischa Maisky | Cellist

Mischa Maisky (born January 10, 1948 in Riga, Latvia) is a celebrated cellist who won 6th Prize at the Moscow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1966.

Maisky began studies with Mstislav Rostropovich at the Moscow Conservatory whilst pursuing a concert career throughout the Soviet Union. In 1970, he was imprisoned in a labor camp near Gorky for 18 months. After his release, he emigrated to Israel. He also studied for a time with Gregor Piatigorsky in Los Angeles. He currently lives in Belgium.

In his performing and recording career, Maisky has worked in long-standing partnerships with artists such as the pianists Martha Argerich and Radu Lupu, the violinist Gidon Kremer, and the conductors Leonard Bernstein, Zubin Mehta, Vladimir Ashkenazy, Daniel Barenboim, and Giuseppe Sinopoli. He has played worldwide and has made numerous recordings.



CONDUCTOR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의 명반과 음악 세계

침착한 음감으로 무장한 은회색톤의 마법사

"프뤼벡은 포디엄의 권위 있는 마스터이며 매우 뛰어난 지휘자입니다." 미 워싱턴 내셔널 교향악단의 프렌치 호른 주자이자 워싱턴대 음대 교수인 스코트 피어링은 75세의 노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였다. 지휘자로서의 예품은 물론이요, 레퍼토리 면에서 보건대 프뤼벡은 참으로 유니크한 성향의 소유자이다. 스페인 음악과 독일 음악이 대등한 황금비율로 마에스트로 예술세계의 두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에는 독일인 아버지와 스페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혈통이 몸 안에 섞여있다는 점, 마드리드 음악원과 뮌헨 음대를 거치며 양국의 문화적 자양분을 고루 흡수했다는 사실이 배경으로서 작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럼 먼저 프뤼벡의 스페인 음악을 살펴보자. 단언컨대 아타울포 아르헨타(Ataulfo Argenta 1913-1958)를 제외한다면 그만큼 스페인 음악 연주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은 없다. 무엇보다 발레 음악 '삼각 모자'를 쓴 파야(Manuel de Falla, 1876-1946)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1969년 첫 번째 미국 방문 시 필라델피아 관현악단과 공연한 작품도 다름 아닌 '삼각 모자'였다. 레코딩으로는 필하모니아 관현악단을 지휘한 '삼각 모자' 및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Paris Societe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을 지휘한 '스페인 정원의 밤'(EMI)이 불후의 명반이다. 뜨거운 정열과 약동하는 리듬, 강렬한 색채가 어우러져 이국의 농염한 향기를 한껏 뽐어낸다. 명엔지니어 케네스 윌킨슨이 녹음을 담당한 '사랑은 마술사'(Decca), 로스 앙헬레스(Victoria de los Angeles 1923-2005)를 주역으로 내세운 오페라 '허무한 인생'(EMI) 또한 명성 자자하다. 각각 리메이크 버전도 존재한다. '사랑은 마술사'와 '스페인 정원의 밤'은 2001년 그라나다 국제 음악 무용제 실황(RTVE)이, '허무한 인생'은 2001년 칼리아리 오페라극장 관현악단 실황(Dynamic)이 출시되어있다.

붉은 심장과 중후한 지성

파야나 그라나도스, 알베니스 등 스페인 음악이 그의 붉은 심장을 상징한다면 브루크너나 바그너 같은 오스트로-저먼 계열 음악은 프뤼벡 데 부르고스의 중후한 지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정통적인 수사법과 침착한 음감으로 무장한 그의 독일 낭만파 음악 해석의 수준은 정말 예사롭지 않다. 도이체 오퍼 베를린(Deutsche Oper Berlin)의 음악총감독 시절인 1995년 공연한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영상(Arthaus Musik)이 대표적인 예이다. 괴츠 프리드리히의 연출, 볼프강 브렌델을 위시로 한 가수진, 프뤼벡의 지휘, 모두 준수한 것이다. 2006년 드레스덴 필과 레코딩한 브루크너 교향곡 3번(Genuin) 역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역작이다. 느긋하게 설정된 템포, 유유자적 자연스러운 곡 전개, 오케스트라의 그윽한 은회색 톤. 이토록 유장하고 고담한 브루크너가 요즘 어디 흔하던가. 그의 지휘법 스승이 당대의 명브루크네리안 쿠르트 아이히호른(Kurt Peter Eichhorn 1908-1994)이었음을 새삼 일깨운다.

브람스 교향곡도 지휘자가 평소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레퍼토리중 하나이다. 1996년 우리나라에 빈 교향악단을 인솔하고 내한하였을 때 무대에 올린 프로그램이 브람스 2번이었으며, 이듬해인 1997년 베를린 방송교향악단과 가진 일본 방문공연에서 지휘한 작품이 브람스 1번과 3번이었다. 독일 전통 스타일에 충실한 훌륭한 브람스를 들려주었다. 현지에서 호평 받았던 후자의 콘서트는 촬영까지 되어 현재 로컬 버전 DVD(Geneon Entertainment)로 유통되고 있다. 프뤼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7년 드레스덴 필과 브람스 1번·3번을 스튜디오 녹음하여 지난 3월 신보(Genuin)로 내놓았다. 이밖에 그는 R.슈트라우스에도 관심이 많다. 빈 교향악단(Calig) 및 드레스덴 필을 파트너로 알프스 교향곡을 두 차례에 걸쳐 레코딩(Calig, Genuin)하였고, 드레스덴 필을 지휘한 '돈 키호테'와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앨범(Berlin Classics)도 발매되어있다.

글 이영진 (음악 칼럼니스트)



Rafael Frühbeck de Burgos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1995년)

볼프강 브렌델, 고스타 빈버그/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지휘)/도이체 오페라 베를린 오케스트라 & 합창단
(2DVD/16:9/PCM Stereo/266분)

Arthaus Musik 100 153 NTSC



파야/알베니스* 외

‘스페인 정원의 밤’/스페인 랩소디* 외 (1983년)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런던 필

Decca 410-289 2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돈 키호테’ ‘탈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2004년)

크리스티나 비방크(비올라)/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지휘)/드레스덴 필

Berlin Classics 1768



브루크너

교향곡 3번 (2006년)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드레스덴 필

GEN 87086



브람스

교향곡 1번, 3번 (2007년)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드레스덴 필

GEN 87100 (DDD)

SOLOIST

미샤 마이스키 Q&A

왜 이세이 미야케를 입는가

미샤는 무대 의상으로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을 입는다. 해외 공연을 하면서 공항 도착에서 기쁘게 슈트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 때 미샤는 각별히 긴장할 만큼 이세이 미야케 의상에 대한 애착은 유별나다. 이세이 미야케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야케는 천재입니다. 양복은 뭐든지 다 좋아하긴 하지만 미야케의 의상은 언제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주할 때는 움직이기 쉬워서 마음에 들고요, 일본에 들릴 땐 아무리 바빠도 매장에 가서 신상품을 고르곤 합니다." 1995년 도쿄에서 열린 리사이틀에선 이세이 미야케가 직접 미샤의 공연에 찾아와 음악가를 기쁘게 했다. 리사이틀 때 미샤는 곡에 따라 다른 색 셔츠를 입고 무대에 나선다. 소품이 계속 될 때는 일부러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연주 중에 가슴에 땀이 많이 나서 곡과 곡 사이에 셔츠를 갈아입어요, 색상이 달라지면 관객들이 '아, 갈아 입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미샤를 반주하던 피아니스트 달리아 호보라를 비롯해 파벨 기릴로프도 미샤의 충고로 이세이 미야케에 빠졌다. 미샤가 미야케를 좋아하는 마지막 이유. "셔츠가 원래 꾸깃꾸깃해서 가방에 적당히 쑤셔 넣었다가 다시 펴도 별로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의 집은 어디인가

미샤는 벨기에 브뤼셀의 교외 호수를 기점으로 언덕에 위치한 성에서 살고 있다. 자택을 나와 호수를 따라 조금 걸으면 연습 스튜디오가 나온다. 이곳의 번지수는 172번지로 바흐가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작곡한 1720년에서 0을 빼면 이 곳의 번지수와 일치하는 우연성 때문에 이곳 연습실을 떠나지 않는다고 미샤는 밝힌다. 스튜디오 안에는 피아티고르스키와 번스타인, 가족의 사진이 붙어 있고 스튜디오 이름은 바흐 모음곡 이름인 '사랑방'로 지어졌다. 미샤의 애마는 도요타 렉서스로 자신의 소속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의 이니셜을 따서 차 번호판에는 알파벳 DGG를 새겨 넣었다. 도이치 그라모폰이 자신의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을 비롯해 몇 종의 음반을 폐반 시킨 것에 상심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은 그냥 두었다.


미샤의 어떤 음반이 가장 많이 팔렸나

미샤는 음반 재킷에 자신의 사진을 넣기를 즐긴다. 되도록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들을 재킷으로 쓰는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DG)반도 스위스 사진을 썼고 미샤 디스코그래피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23년만에 조국으로 돌아가 연주한 플레트네프/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음반을 개인적으로 아끼고, 지휘자를 두지 않고 연주한(오르페우스 챔버)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도 좋아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기가 대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 음반을 각각 만들었는데 일본에선 '해변의 노래'와 '이초키의 자장가'를 한국에선 '청산에 실어리었다', '그리운 금강산'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 곡들을 앙코르용으로 연주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미샤의 형

비발디 '사계' 음반 중에는 아이작 스톤이 바이올린과 지휘를 맡은 CBS 소니 반이 있는데 챔발로 파트에 '발레리 미샤'란 연주가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미샤 마이스키의 형으로 급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고 생전에는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했다. 피아노를 치는 딸 릴리, 바이올린을 하는 아들 사샤와 미샤 트리오를 구성해 한국 방문을 원한다는 인터뷰를 2003년 가졌지만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Mischa Maisky

Deutsche Grammophon 레이블 명반 



J.S.바흐
첼로 소나타 (1990년)
미샤 마이스키,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쇼스타코비치/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1999년)
미샤 마이스키,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J.S.바흐
6개 무반주 첼로 모음곡 (2000년)
미샤 마이스키









멘델스존
첼로 소나타, 변주곡, 무언가 (2002년)
미샤 마이스키, 세르히오 티엠포(피아노)



라흐마니노프
'엘레지' (2002년)
미샤 마이스키, 세르히오 티엠포(피아노)



VINCERO 2008 SEASON

<p>Jun</p>	<p>BIG 5</p> <p>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협연: 미샤 마이스키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4번</p> <p>2008. 6. 22 (일)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Jul</p>	<p>BIG 5</p> <p>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바흐 오케스트라 / 협연: 무라지 카오리(기타리스트) J. S. 바흐 <기타협주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외</p> <p>2008. 7. 16 (수), 17 (목)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Aug</p>	<p>어메이징 보이스 2008</p> <p>2008. 8. 17(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p> <p>2008. 8. 19(화), 20 (수)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Sep</p>	<p>유러피안 갈라 콘서트</p> <p>2008. 9. 24 (수)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Oct</p>	<p>데이브 코즈 내한공연</p> <p>2008. 10. 13 (월)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p> <p>2008. 10. 28 (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Nov</p>	<p>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 내한공연</p> <p>2008.11.5 (수)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Dec</p>	<p>할렘 가스펠 콰이어</p> <p>2008. 12. 3 (수)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p> <p>2008. 12. 13 (토)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라야톤 & 엠팩 내한공연</p> <p>2008. 12. 21 (일) 세종문화회관 M 씨어터</p> 

16월

20

공연

본가의 자부심으로 일구어낸 정통 바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바흐오케스트라

Bachorchester des Gewandhauses zu Leipzig

RES SEVERA VERUM GAUDIUM



기타협연 _ 무라지 카오리



리더 _ 크리스티안 똥케

Program

16일 _ J.S. 바흐 쳄발로 협주곡 No.2, No.5 (기타편곡), 관현악 모음곡 2번 b단조 외 17일 _ J.S.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2008. 7. 16(수)~17(목) 8:00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 주빈체로

티켓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3만원

공연문의 | 주빈체로 02-599-5743 예매 | 주빈체로 www.vincero.co.kr ticketlink 1588-7890 INTER PARK 1544-1555

최정상의 아카펠라 드림팀이 함께 하는 스페셜 퍼포먼스!





AMAZING VOICE 2008

리얼그룹 | 아이디어 오브 노스 | 엠팩 | 라야톤



2008. 8. 19 | 화 ~ 20 | 수 8: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 주빈체로엔터테인먼트 www.vincero.co.kr 티켓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 C석 3만원
문의 |  | 주빈체로엔터테인먼트 02-599-5743 예매 | ticketlink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CJticket 1577-8888

Vincero Homepage Renewal



'문화명품의 장인' 공연 기획사 빈체로가 홈페이지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새 홈페이지에는 2008년 빈체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들과 아티스들의 이모저모, 더욱 기대되는 2009년 프로그램들이 공연 애호가 여러분을 찾아 갈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새롭게 단장한 예쁜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www.vincero.co.kr

빈체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및 혜택

01 | 무료회원 Amico의 혜택

- 월 1회, 빈체로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티켓 예매시 예매 수수료 면제
- 다양한 Vincero Point의 혜택 (무료주차권, 프로그램, 포스터, 티켓할인등)

02 | 유료회원 Mania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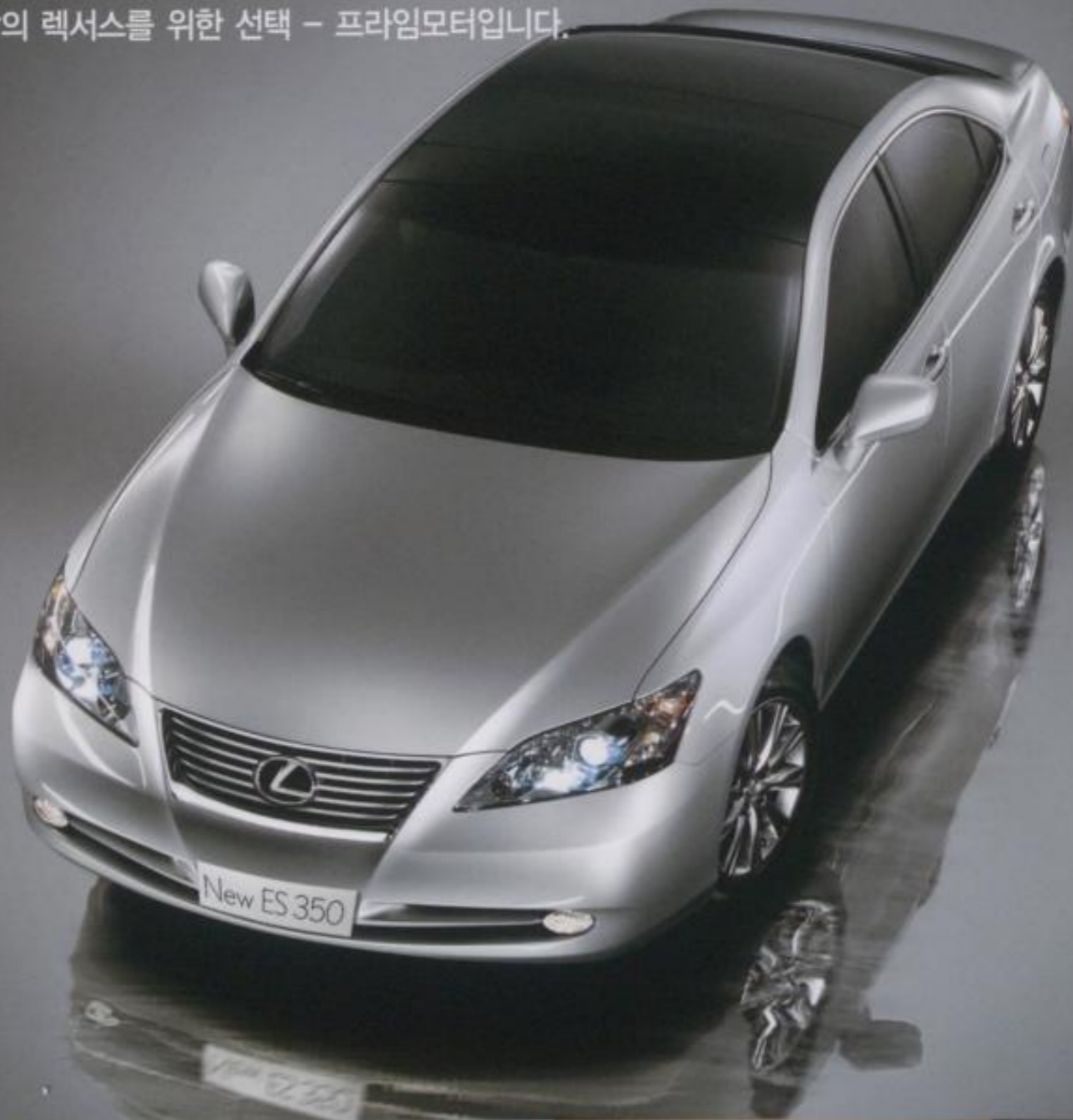
- 무료회원과 동일한 혜택 제공
- Concert할인 혜택 제공 (20% 또는 30%)
- 연 2회 공연티켓 제공 (1인 2매)
- 공연 프로그램북 무료 제공
- 유료회원을 위한 공개 감상회 주최

03 | 오프 더 스테이지 <OFF THE STAGE>

빈체로 스태프들이 전하는 무대뒤 생생한 이야기
아티스트들이 한국 팬들에게 전하는 친필 메세지, 에피소드 등
재미있는 이야기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궁금하시죠? 얼른 오세요!

완벽, 그 이상의 렉서스 - 프라임모터에서 만나십시오

단순히 렉서스를 원하신다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보다 완벽한 렉서스를 원하신다면 프라임모터를 만나십시오.
 귀하의 품격에 맞추어 안락하게 모시는 공간, 최상의 A/S를 해줄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정비 서비스,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진정한 렉서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완벽, 그 이상의 렉서스를 위한 선택 - 프라임모터입니다.



프라임모터 본사



전시장



스페이스함 렉서스 갤러리



마크레빈슨 오디오룸



강서종합정비센터



렉서스 시어터



고객 라운지



실내 골프장

렉서스 공식딜러
PRIME Motor
www.lexusprime.com

서초 전시장 : 080-924-9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7-2

서초 서비스센터 : 080-925-8255
 강서종합정비센터 : 080-925-8277

7-008
 과 IT컨



모두의 희망을 위해, IT서포터즈가 함께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 분주하게 떡을 빻는 청주 전통 떡마을 사람들.
전국 곳곳에서 들어오는 온라인주문에 마을 사람들의 꿈도 더 커져갑니다.
모두의 꿈을 이루는 IT, 바로 KT IT서포터즈가 나누는 희망입니다.

IT희망프로젝트 KT는 전 국민의 IT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사내전문가들로 구성된 IT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서포터즈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합니다.

IT를 나눠요!



17-0080/www.itsupporters.com

교육과 IT컨설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영합니다

Life is wonderful **KT**

V
ICE
R
Z
O



SLUB

Wir führen Wissen.



Dresdner
Philharmonie